

順天倭城의 構造와 築城方法에 대한 조사연구

千得琰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趙俊翼

(전라남도 순천시청)

丁鐵聲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1. 順天倭城 연구의 意義와 方法

三國志의 기록에 의하면 삼한시대에는 상당한 수준의 성곽이 축조되었으며, 성이 나라, 즉 “國”을 구성하는 중요한 단위였음을 알 수 있다.¹⁾ 왕검성의 존재를 언급한 史記 朝鮮傳의 기록이 문헌상 최초이며 더욱이 수개월동안 함락시키지 못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왕검성은 상당한 규모였으며, 구조적으로도 발달된 성곽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또한 衛滿이 조선에 와서 관리를 두고 障을 쌓았다는 것을 보면 고조선의 말기 성곽의 존재를 확인 할 수 있겠다.²⁾

삼국시대 초기부터는 도성과 궁실, 그리고 성곽에 관한 기사가 각종 史書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복국가의 성격을 강하게 띤 삼국시대에는 480여회의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다.³⁾ 그러므로 삼국사기에는 정치, 전쟁의 기사 속에 성곽의 축조내용이 나타나고 列傳, 지리지 등에도 많은 성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전투용 성곽의 성격을 띠는 경우라 하겠다. 또한 임진왜란을 겪은 후 정약용 등의 학자들에 의해서 중국의 城制와 일본의 城制가 연구되어, 華城營建에 참조되었던 사실⁴⁾을

「華城城役儀軌」의 기록⁵⁾등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⁶⁾

우리나라는 유달리 왜침이 많았던 까닭에 많은 성곽을 축조하여, 梁誠之는 우리나라를 ‘성곽의 나라’라고 지적할 정도로 그 수가 많다.⁷⁾ 일제시대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파악된 성의 수는 1800여개에 이른다.⁸⁾ 또한 문화재관리국이 1970년대에 정리한 「문화유산총람」에 수록된 성곽수만 하더라도 1200여개에 이르며 성터 유적은 단일유적으로는 그 수에 있어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성곽중에서 일본인들에 의해 한국내에 건립된 왜성이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30여개소에 달하여 왜성의 역사적 존재의미나 축성기법 등에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왜성은 남해안뿐만 아니라 내륙지역에서도 축조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 그 유구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상은 알 수 없다.⁹⁾

이에 본 연구는 정유재란 당시에 構築되었으며 축성흔적이 비교적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순천왜

1) 천관우, “삼한의 국가형성”, 『한국학보2』, 1976, p.6

2) 李炯佑, “삼국시대의 성곽과 지명”, 『민족문화논총』 제8집, p.58

3) 申滄植, 『한국고대사의 신연구』, 1984, pp.284-285

4) 李建河, 內勝昌 : “華城城役儀軌에 있어서 石垣構築設計體系에 관한 연구”, 『日本建築學會計劃系論文報告集』, 第450號, 1993. 8

5) 『華城城役儀軌』, 卷一, 筵設, 癸丑十二月初八日條, 奎章閣所藏, (1796-1801)

6) 李建河의 3인, “일본 근세의 축성술에 관한 연구(1)”,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3. 11, p.49

7) 世祖大王實錄 卷第三 二年 丙子 丁酉 “集賢殿直提學梁誠之上疏曰.....”

8) 井上秀雄, “朝鮮城郭一覽”, 『朝鮮學報』 제103집-107집

9) 柳在春, “近世 韓日城郭의 比較研究”, 『國학자료원』, 1999, p.190

성에 대하여 조사연구 함으로써 일차적으로는 한국 내에 있는 일본 성곽건축의 構築方法에 대해 고찰하며, 이차적으로는 한국성곽과의 비교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전란 당시 왕조실록에 기록된 문헌사료 등을 토대로 당시 유구 현황 및 조선측의 대응을 파악하고, 1930년도에 측량 제작된 順天倭城全圖(九州大所藏) 및 征倭紀功圖卷과 최근 日本城郭談話會에서 작성한 현황도, 순천대 박물관에서 시굴 조사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축성기법을 중심으로 조사연구 하였다.

2. 순천왜성의 연혁

2-1 순천왜성의 현황¹⁰⁾

- (1)소재지 :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산1번지
- (2)문화재 지정과 관련된 그간의 경과
 - 1938년 : 고적지정(1934년 제정된 조선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에 의거)
 - 1962년 : 사적 제49호 지정(문화재명 : 승주신성리성)
 - 1996년 3월~12월 : 일제강점기에 지정된 문화재에 대한 재평가(문화재관리국 중앙문화재 위원회)
 - 1997년 1월 1일 : 국가지정인 사적에서 해제(일제 강점기 고적으로 지정된 신성리성 이외에 울산학성, 사천 선지리성, 김해 죽도성, 기장 죽성리성, 웅천 안골리성, 서생포성, 물금 증산성 등임)
 - 1998년 1월 1일 : 전라남도지정문화재 지방기념물 제171호 지정(문화재명 : 순천왜성)

왜성이 경남 남해안에 집중한 것에 반하여 순천 왜성은 유일하게 전라도에 위치하며 정유재란 때 축조한 8성중 하나로 최좌측 지역인 광양만에 위치하고 있다. 순천왜성은 처음 축조 당시 일본군이 순천倭城이라 하여 順天邑城과 구분하였으며, 倭橋 또는 曳橋로 불리었고, 倭城 또는 倭城臺 등의 별칭을 갖고 있다.¹¹⁾

또한 광해군때 이수광이 순천부사로 있을 당시 그 이름이 좋지 않다 하여 望海臺라고 한 예도 있다.

그후 1962년 사적 지정 당시 마을 이름을 붙여 신성리성이라 하였고 사적 지정해제와 함께 왜성 명칭을 사용토록 하여 순천왜성으로 1998년 1월 1일 전라남도 지방기념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사적 지정 시에는 보호구역(總構)을 포함하여 총 321,000m²이었으나 지방기념물 지정 시에는 인근지역 개발 저해 및 지가하락, 소유권 제한 등을 이유로 토지소유자와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국유지인 임야 188,428m²만 문화재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 일대는 울촌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급격한 개발로 바다가 매립되고 獐島는 매립용 토석 채취를 위하여 훼손되어 순천왜성 전투 당시의 모습을 많이 상실하였으나 경남 연해안에 위치한 타 왜성과는 달리 외곽부까지 큰 훼손 없이 잘 간직되고 있으므로 역사적인 현장으로서 그 보존이 절실히 요망되는 지역이다.

2-2 순천왜성의 축성경위와 倭橋城 전투

1596년 9월 大坂城에서 열린 강화교섭 결렬로 豊臣秀吉은 2차 조선침략에 착수하게 된다. 이것이 곧 丁酉再亂이다.¹²⁾

정유재란은 풍신수길의 작전명령에서부터 “먼저 전라도를 남김없이 공략한 다음 충청도 그리고 그 밖의 가능한 지역을 공격하라”하였으니 재침의 1차적인 목표가 호남지방을 장악하는데 있었다.¹³⁾

정유년 9월초 경기도 직산 부근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黑田長政 휘하의 일본군은 패퇴한 뒤 9월 중순 이후 전군이 전라도와 경상도 남해안지역으로 남하하였다.

여기에서 각 지역의 요충지를 택하여 새로운 성

외곽부를 포함하여 당시 우리나라 사람이 倭를 ‘예’라 함에서 예교라고도 하였다. 왜성대 밑에 있는 閑有里에서 앞바다로 뻗어 들어가 작은 구릉을 양편에서 파들어 가다가 중심에 넓고 30척 쯤 되는 連陸脈을 남겨서 왜성대로 통하는 길을 만들고 이 길을 통하여 전선에 오르내리게 하였으며, 양편의 파낸 곳에 배를 대게 하였다. 그러므로 해류의 만조 때에 보면 바다속에 우뚝 내민 산봉우리에서 왜성대 밑에 다리가 걸려 있는 것 같이 보여서 다리는 아닌데 당시는 여기에 접근하지 못하고 멀리서 보이는 대로 왜성대의 다리로 인식되어 ‘왜교’라 부르고 ‘예교’란 별칭이 붙은 것이다.

12) 침략한 해의 명칭을 붙여 우리 나라에서는 壬辰倭亂과 丁酉再亂이라 부르고 日本에서는 文祿·慶長役이라고 한다.

13) 李炯錫, 『壬辰戰亂史』, 中卷, 서울대학교 출판부, 1967, p.947

10) 千得琰, 『順天 劍丹山城과 倭城-順天倭城의 構造와 築城技法』, 順天大博物館, 1997, pp.108-109.

11) 허선도, 『순천 왜교성의 명칭과 해설』, 『임진왜란과 전남』, 전라남도, p.22

倭橋, 일명 曳橋, 즉 옛 다리는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의 뒷산 고지에 구축되어 있는 倭城臺를 중심으로 하고 그

을 쌓기 시작한 그들은 대체로 연말 이전에 순천 왜성 등의 축성을 완료한 후 각성에 수성군을 배치하였다.

순천왜성을 제외한 나머지 성이 모두 경상도 연해 지역에 집중되었고, 순천왜성에서 남해성-사천성-고성성-창원성-양산성-울산성으로 이어지는 상호간의 협력체제가 구축되었다.

小西行長은 11월 10일을 기해 철퇴하려고 순천을 출발하였으나 朝·明수군의 합선 500여척이 송도 해협을 차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천성으로 돌아왔다. 島津義弘·宗義智·立花宗武 등은 行長이 귀로를 차단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17일 밤 행장을 구출하기 위해 합선 500여척을 동원하여 노랑해협을 향해 출진하였다.

11월 18일 오전2시경 島津義弘이 거느린 일본합선과 노랑해협에서 마주쳐 격전을 벌여 적선 200여척이 불에 타거나 부서지는 큰 피해를 주었고 잔여 적선 100여척은 남해로 도망쳤다. 朝·明연합군은 대승을 거두게 되나 이순신은 왼쪽 가슴에 적탄을 맞아 전사한다. 이 전투가 노랑해전이다.

지금까지 순천왜성의 축성 담당장수는 宇喜多秀家와 藤堂高虎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된다.¹⁴⁾ 그 이유는 1922년 일본군 참모본부가 편찬한 「日本戰史朝鮮役」의 기록에 순천왜성을 구축한 것이 바로 위의 두 장수인 것으로 기술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난중잡록」의 정유년 9월 초하루 기사에 보면 “行長 등 적이 구례를 거쳐 순천으로 향하여 왜교에 결진하여 성을 쌓고 막사를 지었다”¹⁵⁾ 라고 한 것과, 그 해 12월초에 소서행장이 宇喜多秀家와 藤堂高虎 앞으로 보낸 축성 완료의 서장을 보낸 것으로 보아¹⁶⁾ 보다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위의 사료에 의하면 1597년 9월부터 11월 말경에 이르기까지 약 3개월 간에 걸쳐 쌓아진 것이 순천왜성이며, 축성을 담당한 일본군 장수는 위의 宇喜多秀家나 藤堂高虎가 아니라 바로

소서행장이라고 생각된다.

2-3 國內의 倭城

倭城이란 壬辰倭亂(1592~1597)때에 豊臣秀吉軍이 국내에 구축한 순 일본식 성곽의 총칭으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낮추어 부르고 있으나 일본 국내 성곽연구에서도 왜성이라는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왜성의 축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임진란시 국내에 깊숙이 진출한 일본군의 수송로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축성된 것으로 부산에서 서울을 거쳐 평양에 이르는 길에 만들어진 내륙지역의 城이다. 따라서 이들은 임시로 축성하거나 조선의 읍성을 약간 수축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현재 이들의 소재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또 하나는 한반도의 남부지방 해안지대에 축성한 것으로 대부분 일본으로부터 보급로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만든 것이거나 일본군이 내륙에서 후퇴한 후 형세의 유리한 전개를 위하여 만든 것이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그들의 근거지를 확보하기 위함이거나 왜군내의 타군과의 연락과 특히 임진란 전 기간 우세했던 조선수군의 공격에 대비코자 곳곳에 축성하였다. 이들 城은 대개 강이나 바다에 접근하여 구릉을 이용하고 수송연락관계를 고려, 선박출입이 용이한 장소를 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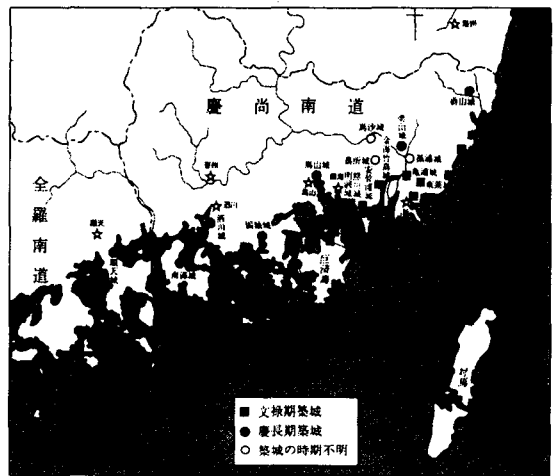


그림 1. 倭城址 位置圖¹⁷⁾

14) 조원래, 「순천 검단산성과 왜성」, 순천대박물관, 1997, pp. 9-10
 15) 「行長等賊 由求禮向順天 結陣于倭橋 築城造幕」(「난중잡록」 권3, 정유 9월 초1일)

16) 소서행장이 일본력 慶長 2년 12월 2일자로 宇喜多秀家와 藤堂高虎 앞으로 보낸 서장에서 ‘赤國の内順天之御城御普請悉相濟請取申候恐惶謹言」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靑柳綱太郎, 「征韓役日韓史蹟」, 1910, p.199)

조원래, 앞의 책, pp.9-10에서 재인용

17) 城郭談話會, 앞의 책, 創刊號, p.2

표 1. 왜성의 조성시기 및 현황¹⁸⁾

번호	城名 (일본에서의 명칭)	時期	築城者	所在地	備考 (국내에서의 명칭)
1	釜山城	文祿元年(1592)	毛利輝元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2	釜山支城	文祿 2年(1593)	毛利手元	부산광역시 동구 범1동	子城臺倭城
3	林浪浦城	"	毛利吉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4	機張城	"	黑田長政	부산광역시 기장군 죽성읍	竹城里倭城
5	龜浦城	"	小早川隆景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甘筒城
6	金海竹島城	"	鍋島直茂・勝茂	부산광역시 강서구 죽림동	
7	加德城	文祿元年(1592)	毛利輝元	부산광역시 강서구 놀자동	
8	加德支城	文祿 2年(1593)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9	西生浦城	"	加藤清正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동	
10	馬沙城	시기불명	鍋島直茂・勝茂	김해시 생림면	外城은 土城
11	農所城	文祿 2年(1593)	鍋島直茂・勝茂	김해시 주촌면 덕곡리	新答城
12	安骨浦城	"	脇坂安治 등	진해시 안골동	일본수군기지 熊洞安骨里城
13	熊川城	文祿元年(1592)	小西行長	진해시 남문동	일본제2수군기지
14	熊川支城	文祿 2年(1593)	宗義智	진해시 명동	甘浦山城
15	熊川支城	"	松浦鎮信	진해시 명동	小山城
16	永登浦城	文祿元年(1593)	島津義弘・忠恒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17	松眞浦城	文祿 2年(1593)	福島正則	거제시 장목면 송진리	
18	長門浦城	"	蜂須賀家政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19	倭城洞城	慶長 2년(1597)	宗家	거제시 사등면	
20	蔚山城	"	淺野行長	울산시 중구 학성동	蔚山鶴城
21	梁山城	"	黑田長政	양산시 물금면	勿禁甌山城
22	馬山城	"	鍋島直茂・勝茂	마산시 산호동	昌原城
23	固城城	"	吉川廣家	고성군 고성읍	
24	四川城	"	毛利吉成	사천군 선진리	船津里城
25	南海城	"	水軍諸將	남해군 남해읍 선소리	
26	順天城	"	宇喜多秀家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順天倭城
27	孤浦城	시기불명	불명	양산시 동면 가산리	孤浦里城 소멸
28	東萊城	文祿 2年	吉川廣家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소멸
29	椎木城	"	毛利輝元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2동	소멸
30	迫門口城	"	毛利輝元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소멸

18) 城郭談話會, "倭城の研究", 創刊號, 1997, p.3
유재춘, 앞의 책, p.191

壬辰倭亂과 丁酉再亂 때 축성한 城으로 유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성은 30개소(표1 참조)였으나 최근 거제시의 울포산성과 함포산성이 확인¹⁹⁾된 적이 있으며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3. 순천왜성의 구성요소와 축성방법

순천왜성의 옛 모습을 알 수 있는 문헌 자료는 剡湖集, 征倭紀功圖卷, 日本戰史朝鮮役 등이 있다. 이 성에 대한 임란당시 모습은 진주성전투와 예교성전투에 참전하였던 剡湖 陣景文의 「剡湖集」, “曳橋進兵日錄”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 참고가 된다.²⁰⁾ 또한 九州大學 도서관 소장 順天城全圖(1930년 제작)에도 순천성의 평면적인 배치형식이 잘 나타나고 있다.

丁酉年 가을에 왜적이 호남을 크게 침범했다. 평행장(平行長, 소서행장)이 순천부의 남쪽 曳橋에 退據했는데, 이른바 예교란 곳은 산의 형태가 우뚝 일어난 모양이 호랑이가 앉드린 것 같다.

삼 면의 끝은 바다이고 한 면은 물에 이어 있다. 순천부에서 좌수영에 이르는 길이다. 동쪽은 광양의 斥由와 이어져 경계가 된다. 남쪽은 남해섬의 열린 바다와 접했는데 嶺島가 2리쯤에 있고, 서쪽에는 狐頭(여수머리)가 1리 남짓하게 떨어져 있으며, 가운데에는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이다. 石湫은 그 북쪽 10리 밖에 있고 해농창 들 끝이다.

평행장이 設險하고 그 위에 흙을 더해 성을 쌓고 순천의 군인을 수용하였다. 오층 망루를 지어 돌과 흙으로 드리우고 기와와 벽돌로 덮었다. 모양이 나는 날개 같다. 옆에 줄줄이 있는 土庫에 군기와 군량을 저장했고, 밖에 튼튼한 성을 한 겹 쌓았으며, 그 북쪽 연륙된 곳에 濠子를 파다.

동서쪽의 바다와 접한 곳에 배를 띄워 드나든다. 그 〇〇에 한 띠성을 쌓았고, 동서쪽 끝 바다 가운데 문루를 지어서 흙으로 덮었는데, 사면을 거기서 살펴보았다.

밖으로 빙 둘러 목책을 두 겹으로 수축했으며, 그 북쪽 일 면에 한 겹의 성을 더 설치해 위에다 女牆을 쌓아 포 구멍을 벌집같이 냈다. 내성에서부터 외성까지 흙집이 순천 루나 즐비하며, 동쪽에 선창이 있는데 적선이 정박하는 곳이다.

3-1 순천왜성의 구성요소

「剡湖集」의 내용을 「征倭紀功圖卷」과 「順天倭城全圖」, 그리고 현재상황을 비교해 보면 최초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1) 평면 배치형식 : 繩張(나와바리)

순천왜성의 성곽 평면배치 형식은 3겹²¹⁾으로 된 본성과 본성을 육지쪽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3겹의 외곽성(總構)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성은 석성으로 그 안에 1만 3천 7백명의 왜군이 있었으며 천수대 등의 각종 시설이 있었다. 외곽성은 석성과 토성이 혼용되고 있으며 축대형식으로 쌓았다. 대체로 선형에 가까운 모습이나 虎口부분은 ㄱ자형으로 꺾인 형태이다.

이렇게 보면 순천왜성의 평면배치 형식은 바다에 면한 본성을 중심으로 외곽부를 3겹으로 둘러 梯郭式으로, 해안에서 급경사를 이루었고 육지로부터는 3겹의 외곽을 돌려 방어적 기능에 완벽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天守臺가 있는 중심구역에는 돌로 쌓아진 성곽이 아직도 잘 보존되어 있고 방어를 중심으로 구축하였기 때문에 지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상당히 복잡한 형상과 배치를 하고 있다. 한 겹으로 쌓여지고 타원형 형태인 우리나라 산성과 달리 本丸部를 중심으로 여러겹으로 중첩되어 제1방어선이 무너지면 제2, 제3방어선에서 방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성곽은 대부분 직선으로 하여 많은 부분에 격임과 橫矢²²⁾를 두고 있으며 槲形虎口도 서로 근접시켜 방어력을 극대화하였다.

동남쪽은 급경사로 바다(광양만)와 접하여 있어 그렇게 많은 유구가 남아 있지 않으나 섬호집에 목책을 두 겹으로 둘러쌌다는 기록이 있다.

본성과 외곽성(總構)과는 인위적으로 넓은 垓字를 설치하여 바닷물을 끌어 유입함으로써 본성을 섬처럼 요새화 하였고 土橋²³⁾를 만들어 출입하도록 하였다.

21) 일본성의 표현으로는 本丸, 二の丸, 三の丸이라 한다.

22) 우리읍성에서 雉의 역할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직선상의 성벽을 “—”형태로 굴절시켜 측면 방어를 유리하도록 한 시설

23) 「亂中雜錄」 卷3, 무술 10월 16일. 원래 땅을 출입로만을 놔두고 양옆에 해자를 파서 꼭 다리 모양처럼 생겨서 토교라 함. 이 土橋가 만조때 멀리는 다리와 같은 형상으로 보여 曳橋라는 별칭이 붙었다고 함.

19) 유재춘, 앞의 책, p.192

20) 「順天市史」, 정치사회편, 1997, p.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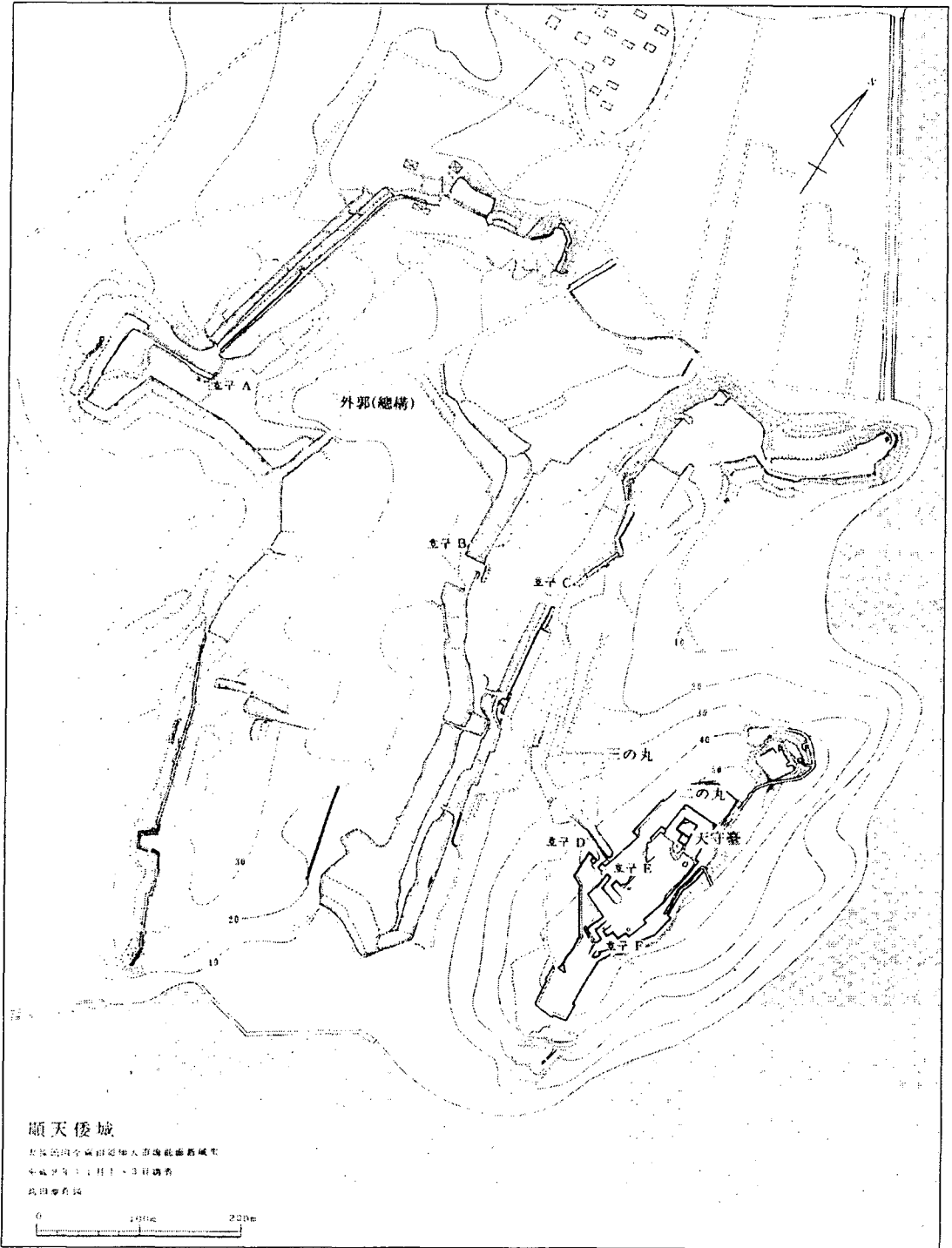


그림 2. 順天倭城全圖²⁴⁾

24) 城郭談話會, “倭城の研究” 제2호, 1998, p.200

(2) 天守

천수는 무기를 저장하는 矢倉이 원형이었다고 하며 殿守, 殿主, 天主, 天守 등의 명칭이 있다.

일본성에 있어서 천수의 형식으로는 독립식, 복합식, 연결식, 연립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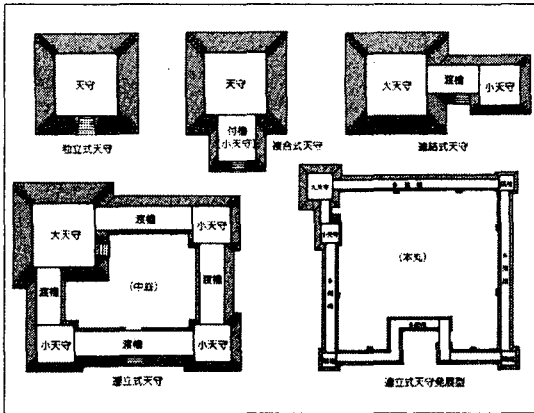


그림 3. 天守의 형식²⁵⁾

順天倭城의 天守台는 付櫓台를 포함하고 있으며, 평면의 크기는 약 18m×14m이고 높이는 6m 정도이다. 「征倭紀功圖卷」²⁶⁾에는 이 천수대 위에 「五層望海樓」라는 글씨와 건물이 그려져 있어 天守閣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현재는 초석만이 남아 있다.

현재 왜성의 대부분에는 천수대를 중심으로 많은 기와편이 산재하여 있고 이 와편이 천수지붕에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기와의 燒成도 가지각색으로 빨강, 다갈색, 검정색 등 다양한 와편이 발견된다. 이 기와는 짧은 축성기간으로 보아 인근 사찰 등에서 약탈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약탈장소와 운반과정 등은 밝힐 수 없다. 천수대 주변에 산재한 와편 중에는 그때 당시의 흔적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직도 검게 그을린 흔적이 남아 있어 소실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천수대는 釜山城, 熊川城, 機張城, 西生浦城, 竹島城, 泗天城 등에서 나타난다.²⁷⁾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왜성에서 천수대의 위치가 本丸의 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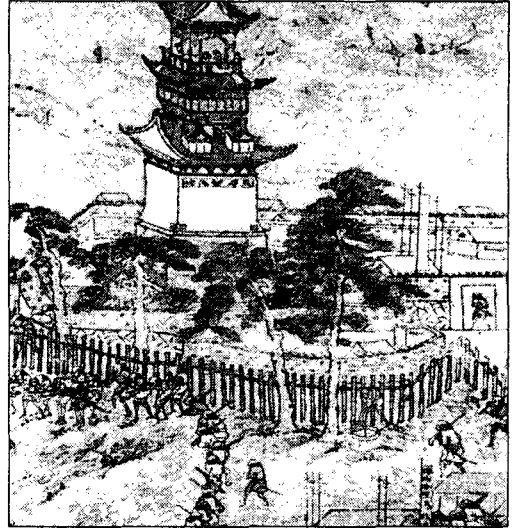


그림 4. 「征倭紀功圖卷」에 나타난 順天倭城 天守閣 (五層望海樓라는 글자가 선명하다)

리에 위치하나 순천왜성의 천수대는 주 곡륜 내부의 북쪽 중앙에 독립되어 위치하고 있다. 마치 길다란 배의 조타석 위치처럼 북쪽에 자리한다.

순천왜성에서 천수대를 이 위치에 선정한 이유는 천수대 아래가 커다란 암반이고 주변을 멀리 조망할 망루가 필요하였으며, 장대로서 권위적인 모습이 필요하였다고 생각된다.

(3) 虎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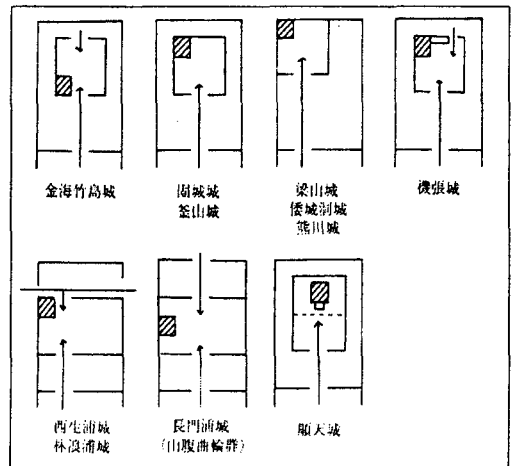


그림 5. 國內 倭城의 天守台 位置²⁸⁾

왜성에서는 성의 출입구를 虎口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적의 침공에 대항하기 유리하도록 한국성의 응

25) 全國城郭管理者協議會, 「日本の名城」, 碧水社, 1995, p.14
 26) 「征倭紀功圖卷」: 왜군을 정벌한 그림이란 의미로 정유재란 시 순천성을 중심으로 조·명연합군과 왜군사이에 치열한 전투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作者는 明나라 중군 화가이나 이름은 미상이며 그림 두루마리 길이는 6.5m로 征倭紀功圖卷으로 표지에 기록되어 부르고 있으나 약칭하여 「임진정왜도」라고 한다.
 27) 천득염, 앞의 책, pp.120-122

28) 城郭談話會, 앞의 책, 제2호, p.107

성처럼 쌓는 형식을 柵形 혹은 柵形虎口라고 한다.

柵形은 적이 직진으로 공격해올 때 방어하는 기능과 方形구역안에 성내 병사가 대기하는 공간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 구역이 方形으로 되[柵]와 유사하여 柵形이라 부르며 그 크기로 兵士의 수를 파악할 수 있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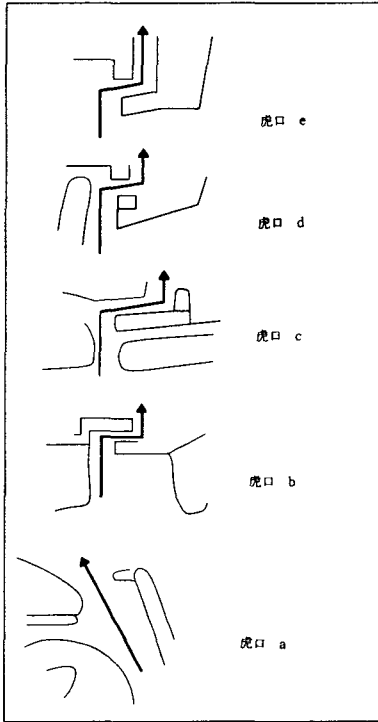


그림 6. 순천왜성의 호구형태

순천왜성에 현재 남아 있는 虎口는 6개소로 외곽성에 3개소, 본성에 3개소가 남아 있다. 왜성은 일반적으로 여러 겹으로 축성되었기 때문에 虎口가 여러 개일 수밖에 없다. 호구a를 제외한 모든 호구는 평면상 굴절되어 꺾인 호구로 적의 직진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평면배치이다. 호구b는 육축 부분에서 문의 넓이가 넓어 방어보다는 공격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柵形이 설치된 모든 虎口의 출입 방향이 “┌” 형태를 취하고 있어 의도적임을 알 수 있으며 방어의 방향, 무기사용에 따른 공격에 유리한

29) 승형의 크기에는 兵學의 축성술에서 「五八의 柵形」이라고 해서 횡 5칸(약 9m), 종 8칸(약 14.5m), 면적 40평을 이상형으로 하고 있다. 즉, 騎馬武者는 1평 1騎로 30騎(供武者 2인 포함), 徒士武者는 1평 6인으로 24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순천왜성에 현재 남아 있는 승형은 3군데로 그 크기는 5m×12m, 6m×14m, 7m×16m이다.

배치로 볼 수 있다.

한국의 성곽에서 승형과 같은 시설은 웅성이라 할 수 있겠다. 웅성은 正城의 크기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고, 모양이 반으로 쪼갠 독(항아리)과 같아서 웅성이라 한다. 다만 웅성은 성문을 밖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며 삼국시대부터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웅성의 형식 중에서 사각형 웅성이 오래된 유적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의 형식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형식은 반원형 웅성이라 하겠다.

(4) 城內 施設物

현재 순천왜성의 지표상에서 나타나는 유물은 본丸의 주위에서 기와편과 초석이 약간 발견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현재의 유구로서는 순천성내에 어떤 시설물들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왜군이 퇴각하면서 성내 시설들을 소실시켜거나 파손시켰고, 더욱이 400여년이 지난 곳이기 때문에 더욱 옛 모습을 알 수 없다. 다만 풍신수길의 지시에 의해서 축성된 성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에 비하여 중요하고 다양한 시설이 있었을 것이라 추정할 뿐이다. 「征倭紀功圖卷」에 天守閣, 櫓, 多間櫓, 堀, 二重木柵 등과 堀에는 사각형, 삼각형, 원형의 狹間³⁰⁾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보인다.

왜성에서는 위와 같이 堀을 설치하고 狹間을 두어 방어를 하지만 국내성곽에서는 체성 위에 여장을 설치하여 방어하였다.

순천왜성의 堀이 현재 일본 내에 있는 성곽의 堀과 같은 모습이었는지 분명치 않지만 「征倭紀功圖卷」에는 오히려 현재 일본성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또한 「剡湖集」에는 女牆을 쌓아 포 구멍을 벌집 같이 냈다는 기록으로 보아 성벽 위의 시설도 다양하게 갖추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5) 외곽부(總構)

순천성은 천수각이 있는 본성을 육지쪽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외곽성이 3겹으로 둘러져 있다. 이 외곽성은 산 능선을 따라 토석혼축성으로 유구가 잘 보존되어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외벽의 높이는 약 1m, 중심부의 토축 높이는 2.5m 정도이고 성벽은 점토와 작

30) 협칸은 우리나라의 총안(타구)의 기능이다, 31) 名護屋城博物館, 研究紀要 第二輯, 1996, p.4

은 할석을 이용하여 약 50cm 정도의 높이로 기초를 다진 후 그 위에 길이 20~70cm, 두께 10~40cm의 할석재를 이용하여 바깥쪽 면만 쌓았다. 안쪽으로는 작은 할석들을 무질서하게 채워 넣어 다짐하였으며 그 안쪽으로는 흙을 채워 넣은 형태로 內托한 片築法으로 축조하였다. 성벽을 쌓은 석재는 일정한 규모와 형태를 갖지 않은 비정형의 석재들로 이루어 졌는데, 바깥쪽에 나타나는 부분만을 거칠게 다듬어서 층이나 줄눈 없이 野面石亂積쌓기(막돌허튼층쌓기)를 하였다. 큰돌사이에는 작은 돌을 끼워 넣으며, 가장 안쪽에는 작은 돌을 1열로 놓아 성벽의 경계를 구분하고 있다.

바깥쪽의 석축이 일부 무너져 있어 외벽의 원래 높이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단면의 형태로 미루어 약 1.6m 정도로 추정되며 성벽의 너비는 약 5m로 판단된다.

土城(土壘) 외측에는 3~4단의 석축열이 발견되고 뒷채움석까지 있어 축조 당시에 석축위에 토루를 축조하여 성곽 높이를 증대시키고 내측에는 판축다짐으로 축조한 혼축성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000년 1월 신성리 마을쪽(북서쪽) 시굴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³²⁾, 성곽의 형태는 외탁을 40~60cm 정도의 자연석재를 층단으로 쌓고 적심을 내부 약 1m 이내로 보충하면서 내탁부분은 토층을 충실히 다짐한 공법이다.

주변 지형이 해안지역으로 황갈색 토층을 절개하고 석비레층인 암반토층을 다시 절개하여 지대석(根石)을 설치하고 외탁은 石城이며 내탁은 土城으로 토석혼축성 방법으로 성곽을 축조하고 성곽외부는 濠岸을 두고 壕字를 설치하였다.

외곽부에 시설된 濠岸(일본은 犬走라 함)은 우리나라에서도 임진왜란을 계기로 소개되어 시설된 것에 비추어 15C말경 동양삼국에 있어 축성술이 상호 교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³³⁾

호안내에는 羊馬牆(또는 牛馬牆) 이라 하는 낮은 울타리가 시설되는데 임진왜란 당시 순천왜성은 屏(우리나라의 양마장과 유사한 시설)이 시설되었는지 또는 木柵이 시설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征倭紀攻圖卷」에 나타난 그림으로 보아, 목책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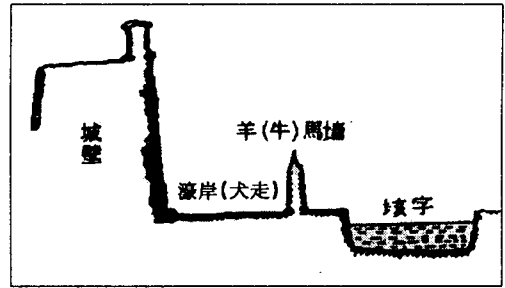


그림 8. 羊馬牆 位置圖 ³⁴⁾

3-2 순천왜성의 축성방법(本丸을 중심으로)

한국성에 있어서 성을 쌓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규범서가 현재까지는 없다. 일본의 경우는 1655년(承應 4年)에 만들어진 「石垣築樣目錄」이라는 石築관련 秘傳書가 있어 구체적인 築城방법에 대하여 전해지고 있다. 이 史料는 그 내용의 기술적 구체성에 있어서 특히 주목되는데, 더욱이 성곽건축의 最盛期였던 江戸初期에 기록된 것이어서 당시 축성기술을 파악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³⁵⁾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순천왜성의 축성방법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충실히 살피고 일본성의 축성방법과 상호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에 관심을 갖고 고찰하고자 한다.

순천왜성은 해안의 구릉정상에 위치하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퇴피형 성이고 산비탈면을 절토하여 내탁한 편축 방식으로 축조된 석축성이라 하겠다. 물론 외곽성인 總構는 土石混築城이고 「劍湖集」의 내용에 의하면 石城의 바깥에 목책을 두점으로 수축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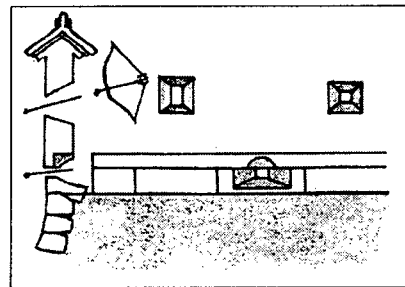


그림 7. 矢 狹間³¹⁾

內托으로 쌓은 성벽 바깥면의 석재는 일정한 크기와 형식을 갖지 않은 비정형의 석재들로 이루어

32) 순천시, 「왜성 진입로 간이 시굴조사 보고서」, 2000, p.13

33) 손영식, 앞의 책, p.169

34) 손영식, 앞의 책, p.171

35)李建河외 3인, 앞의 책, p.51

졌다. 즉 외부로 나타나는 부분만을 약간 다듬어서 층이나 줄눈없이 막돌혀튼층쌓기로 쌓았다. 큰 돌 사이에 조그마한 돌들을 촘촘히 끼워 넣는 것이 일본성의 특징인데 순천왜성에서는 반드시 그렇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天守臺의 성벽 일부에서 발견되는 성돌에 돌을 깨는 모습을 보여주는 矢穴이 보인다. 이 시혈은 일본 성벽의 성돌에서는 흔히 보이는데 한국내의 왜성에서는 순천왜성과 安骨浦城에서 밖에 발견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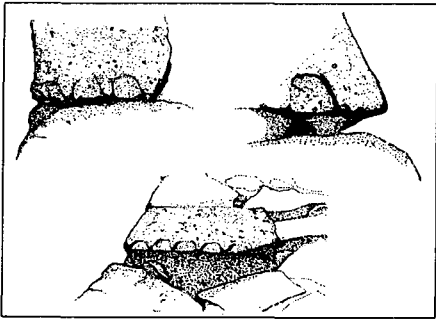


그림 9. 돌쪼갬의 흔적(矢穴)

성벽의 축조방법은 단면방향으로 보면 안길이가 길지 않은 짧은 돌을 성벽의 밖으로 쌓고 안으로는 작은 돌로 뒷채움 하였으나 그 안길이가 깊지 않아 흠으로 나머지 부분을 지탱하고 있는 모습이다.³⁶⁾ 즉 성벽의 안쪽으로는 바깥면 석재보다 작은 自然割石(일본성의 경우는 栗石이라 함)으로 지탱할 수 있도록 끼우거나 채우고 그 안쪽에 다시 돌덩이를 부수어 넣고, 그 안쪽에 석재부스러기와 흙을 채우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방법은 우리나라 산성들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사용된 방법이다. 또한 일부구간에서는 자갈과 흙이 서로 교대되어 다짐한 흔적이 보이는데 일본국내 姫路城, 松山城, 若山城에 이 예가 사용되었다. 인근 「검단산성」³⁷⁾의 발굴조사시 이러한 공법이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는 이미 삼국시대 부터 산성 축조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뒷채움할 경우 그 지지역할을 하는 土層을 어떻게 하였느냐가 관건이다. 2001년 여름에

해안에 면한 부분을 補築하면서 일부분을 시굴하였는데 일본성에서 나타나는 有段傾斜라고 추정되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그림 10)에서와 같이 2~3단 정도의 단을 두어 성벽의 뒷채움을 잘 지탱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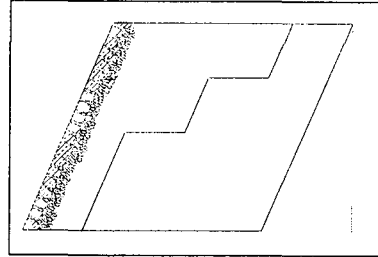


그림 10. 有段傾斜의 흔적 단면

한국의 석성에서 나타나는 체성축조는 성벽단면의 기울기 형상에 따라 곧바로 쌓기로 된 직선형 성벽과 곡선형성벽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고, 곡선형 쌓기는 다시 圭形쌓기와 弓形쌓기로 나눌 수 있다. 圭形쌓기는 활모양으로 안쪽으로 조금씩 들여쌓기 하다가 차츰 밖으로 튀어나오는 모습으로 단면이 마치 조선시대 관료들이 들던 홀과 비슷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이는 성벽 외측으로 배가 부른 항아리 모양 혹은 침상대 모양인 弓形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석축하는 방법과 비교가 된다. 본 순천왜성의 단면형상은 虎口부분과 체성부분이 약간 다른 모습이다. 즉 虎口부분은 일본의 여느 성처럼 맨 아랫돌인 根石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안쪽으로 조금 휘어지다가 맨 윗 부분에는 수직선을 이루게 하였다. 여기에서 성돌들이 위로 쌓아지면서 안으로 들여쌓기 하는데 (그림 11)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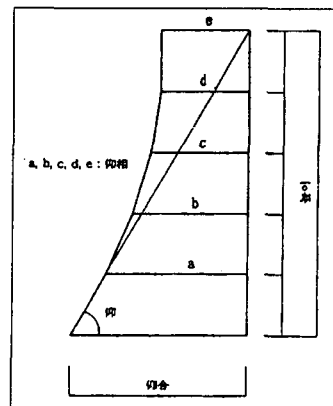


그림 11. 성벽단면 설계명칭³⁹⁾

36) 석축 뒷채움의 안길이는 1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없는 경우도 있다. 파손이 심한 부분이 몇 개소 있는데 이곳에서 본성의 단면형상을 짐작할 수 있다.

37) 「劍丹山城」은 순천대 박물관에서 1997년 발굴조사 결과 백제 시대에 축조된 성으로 조사되었고 사적 제 418호로 지정되었다.

같이 밀변과 높이의 상호관계³⁸⁾로 일정한 질서를 갖게 되는데 순천왜성의 경우는 수리적 질서는 없으나 뚜렷한 모습이 나타난다.

벽면이 나란히 이어지는 체성부분에는 규형이나 궁형이라 단정지을 수 없는 모습이다. 그 이유는 축조당시부터 구태여 그다지 높지 않은 성벽을 쌓으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설령 특별한 방법으로 쌓았다 해도 성벽이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원래의 모습을 잃었을 것이다.

한국성에 있어서 체성의 축성은 맨 아래 지대석을 놓고 밑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만 한정하여 큰 돌을 쓰고 위로는 같은 크기의 성돌을 사용한 곳과 밑 부분은 큰돌로 쌓고 점차 위로 올라가면서 작은 돌을 쓴 것을 볼 수 있다.⁴⁰⁾ 즉 고구려 성들이 사각추형의 다듬은 돌을 차근차근 쌓되 성벽은 대체로 기초부분에는 위에서 내려 누르는 힘은 많이 받기 때문에 밑 부분에는 큰돌을 놓고 위로 점차 올라가면서 작은 돌을 올려 쌓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⁴¹⁾ 위로 올라가며 작은 성돌을 사용하는 방법은 조선시대까지 전래되었는데 왜구의 침입으로 전국적으로 읍성 등 각종 성곽이 축성되기 시작한 고려 말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한다.⁴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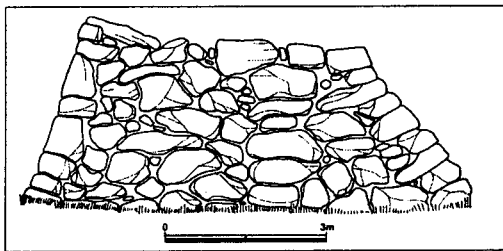


그림 12. 천수대 모서리부분 입면도

순천왜성에 있어서 체성 부분의 축성은 이러한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으나 대체적으로 하부에는 큰돌을 두고 상부로 올라갈수록 작은 돌을 쓴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의외로 상부에 큰돌들이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지

38) 「石垣築様目録」에서는 이를 仰相이라 한다.
 39) 李建河의 3인, 앞의 책, p.54
 40) 閔德植, “三國時代築城法에 관한 몇가지 試考”, 白山學報 제38호, 1991, p.39
 41)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고구려문화」, p.22 閔德植, 앞의 책, p.38에서 재인용
 42) 손영식, 앞의 책, p.93, 185 민덕식, 앞의 책, p.39에서 재인용

대석이라고 생각되는 돌은 없다.

虎口나 天守臺의 모서리부분에는 교차쌓기(算木積) 및 종석(縱石)을 사용한 방법을 같이 병행하였다. 이는 일본성의 독특한 축성방법으로 붕괴에 대한 저항력을 크게 하거나 짜맞춤 결구방법으로 사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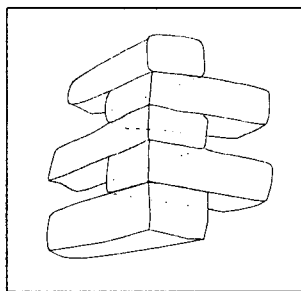


그림 13. 성벽 모서리부분의 교차조립방식

일본의 성처럼 모서리 부분 근석이 면석 보다 밖으로 돌출 된 것으로 보아 모서리 휨(寺句配)이 있었다고 생각되나 현재는 하단부가 많이 밀려나 있어 그 흔적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구배 이외에도 성벽의 모서리 축조방법에서 우리나라의 전통목조건축에서 볼 수 있는 후림과 유사한 기법이 나타나고 있다. 즉 (그림 15)와 같이 평면적으로 보았을 때 성벽이 모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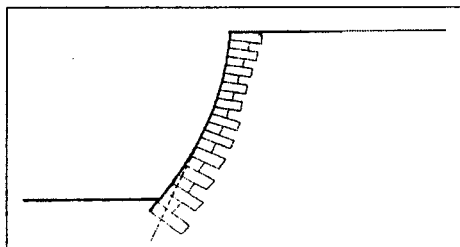


그림 14. 모서리부분 단면도(寺句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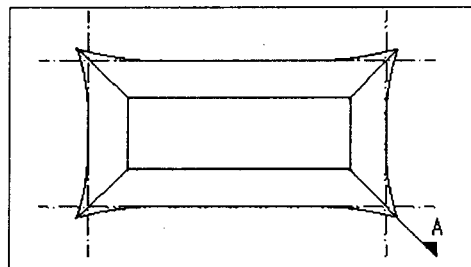


그림 15. 지붕의 후림과 비슷한 모서리 쌓기

부분까지는 직선을 이루다 모서리 부분에서 바깥쪽으로 조금씩 돌출하여 목조건축의 추녀선을 이루도록 쌓아 독특한 구축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일본성에서 나타나는 방법으로 면과 면이 만나는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구조적 불안을 해결하는 방안이라 생각된다.

순천왜성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이한 휨은 성곽전체에서 나타나기는 하나 사실은 모서리 부분에서만 발생한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지대석(根石) 모서리 부분을 밖으로 돌출 시키지 않고 직각으로 하여 휨을 주고자 할 경우 상단(天端)면에서 성곽이 일직선이 되지 않고 틀어지게 되며 휨의 형태 또한 부자연스럽다. 그래서 우리 전통 목조건축 지붕에서 나타난 후림 형태를 지대석이 취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4. 結 論

본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순천왜성의 축성 담당장수는 「난중잡록」의 정유년 9월 초하루 기사와, 그 해 12월초에 소서행장이 宇喜多秀家와 藤堂高虎 앞으로 보낸 축성 완료의 서장으로 보아 1597년 9월부터 11월 말경에 이르기까지 약 3개월간에 걸쳐 쌓았으며, 축성을 담당한 일본군 장수는 宇喜多秀家나 藤堂高虎가 아니라 소서행장이었던 것이라 추정된다.

2) 본 왜성의 성격은 군사적으로 방어목적을 지닌 왜성이고, 지형에 따라 平山城이며, 지리적 위치에 따라 海岸城이며, 축성재료에 따라 本丸은 石城이며 외곽은 土石혼축성이다. 또한 중복도에 따라 復郭城이며, 폐함여부에 따라 閉合城으로 구분된다. 성벽이외에 天守閣 등 많은 壘가 건립되었고 石垣이나 넓은 外郭部의 구축, 그리고 축조 당시 順天城이라 하여 順天邑城과 구분하려 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단순히 방어만을 위한 성이 아닌 장기 주둔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平面 配置形式(繩張)을 보면 山頂上에 위치한 主郭部는 本丸, 二丸, 三丸 및 외곽부 曲輪으로 이어진 梯郭式이다. 순천왜성에서는 산성에서 사용하는 방어시설인 雉의 형태가 나타나 있고 주곽부에서 虎口간의 근접은 방어에 유리하도록 하였고 외곽부에서는 공격에 유리하도록 넓은 면적의 榊形虎口를 배치하였다. 국내 타 왜성과는 달리 天守臺가 곡륜

모서리에 위치하지 않고 곡륜 가운데에 설치되었으며 천수대 주위를 구획하는 천수곡륜이 있다.

외곽부는 토석혼축성을 축대형식으로 쌓았으며, 해안쪽으로는 급경사로 바다와 접하고, 육지 쪽으로는 방어를 위하여 3점의 외곽을 돌렸다. 출입구인 虎口는 6개소 중 1개소를 제외한 모든 호구가 평면상 꺾인 형태로 적의 직진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의도적인 평면배치임을 알 수 있다. 城內 각부의 구조, 즉 광의 형상, 배치 등은 방어를 중심으로 구축하였기 때문에 지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상당히 복잡한 형상과 배치를 이루고 있다.

4) 順天倭城 石築(石垣)에 사용한 岩質은 花崗岩, 玄武岩, 堆積岩, 靑石 등이고, 부근에서 산출하는 암석을 깨어서 人力으로 운반하였으며 그 가운데 큰것은(1.5m×1.5m×2m) 정도의 큰 것도 있다. 虎口 및 天守臺 등 주요부분에 사용한 面石은 대부분 면을 편편하게 다듬은 直方形을 사용하였고 광양면과 접한면은 野面石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채취 및 가공할 때 기구를 이용한 矢穴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다.

5) 순천왜성은 해안의 구릉정상에 위치한 퇴회형 성으로써 산비탈면을 절토하여 내탁한 편축방식으로 축조된 석축성이다.

성벽은 안길이가 길지 않은 짧은 돌을 밖으로 쌓고 안으로는 작은돌로 뒷채움하고 나머지 부분은 흙과 석재부스러기로 지탱하고 있다.

체성과 호구 부분의 축조방법이 다른데 체성 부분은 벽면이 나란히 이어지게 쌓았고 호구 부분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안쪽으로 조금 휘어지다가 맨 윗부분에는 수직선을 이루게 하였다.

虎口나 天守臺의 모서리 부분에는 교차쌓기(算木積) 및 縱石을 이용한 방법이 병행되었고 교차쌓기에 사용한 석재는 주로 矢穴흔적이 있는 석재이며 虎口 일부 모서리에서는 휨(圭形, 寺句配)이 있다. 이러한 사구배 이외에도 우리 전통목조건축의 후림과 비슷한 기법이 성벽 상단부의 연장선, 특히 모서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

외곽부(總構)는 土城(土壘)이나 일부에서는 外築이 石築이다. 土壘 축조는 위치에 따라 성토법과 편축방법으로 축조되었고 석축쌓기는 지대석 및 퇴물림 흔적이 나타나고 있어 산성 쌓기 방법과 유사하다.

참고문헌

1. 이견하, “城郭石垣の構築設計体系に関する研究”, 東京工業大学 博士学位論文, 1994.
2. 이견하외 3인, “일본 근세의 축성술에 관한 연구(1)”,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3. 11.
3. 유재춘, “近世 韓日城郭의 比較研究”, 국학자료원, 1999.
4. 천득염, 「順天劍丹山城과 倭城-順天倭城의 構造와 築城技法」, 순천대박물관, 1997.
5. 조준익, “順天倭城에 관한 研究”,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2000.
6. 이형석, 「壬辰戰亂史」, 충무회, 1975.
7. 부산대 한일문화연구소, 「慶南의 倭城址」, 1961.
8. 손영식, 「韓國城郭의 研究」, 문화재관리국, 1987.
9. 조원래, “丁酉再亂과 順天倭橋城 戰鬪”, 「아시아문화」, 제12호.
10. 城郭談話會, “倭城의 研究” 創刊號, 1997.
11. 城郭談話會, “倭城의 研究” 제2호, 1998.
12. 城郭談話會, “倭城의 研究” 제3호, 1999.
13. 全國城郭管理者協會, 「日本の名」, 碧水社, 1995.
14. 朝鮮學會, 「朝鮮學報」 제125집, 소화62.
15. 伊藤てい, 「城 築城の技法と歴史」, 読売新聞社, 소화48.
16. 新人物往來社, 「日本城郭大事典」, 1997.
17. 名護屋城博物館, 「研究紀要」 제2집, 1996.
18. 順天市史編纂委員會, 「順天市史」, 1997.
19. 日本軍參謀本部編, 「日本戰史朝鮮役」

A Study of The Suncheon-Japanese Castle

Cheon, Deuk-Youm

(Profess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Jo, Jun-Ik

(Master, Chonnam Sunchon City hall)

Jung, Chuel-Sung

(Doctoral cours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at it is made clear the construction method of Japanese Castle Architecture in Korea as I study the construction method of Suncheon-Japanese Castle(順天倭城) in those days of Jeong-yu Japanese Invasion. Moreover, I intend to analyze the similarity and the difference between Suncheon-Japanese Castle and Korean Castle Architecture by a comparative study. The result of the study is showed that Suncheon-Japanese Castle seemed to be built with the object of a long time stay rather than it was of strategic importance for the national defense. In addition, it was different from other Japanese Castle in Korea because the watch tower(天守閣) of it stood in the middle of stronghold and the watch tower stronghold dividing the round of it while that of it stood the corner of stronghold. The face stone used in important part of watch tower, gate, and so on was mostly a trimed hexangular stone. On the other hand, the face abutting on the Gulf of kwang-yang was made of naturally wild face stone. The stone cleared traces of Si-hyeol(矢穴) and domestic Castle in Japan was also made of this method after Im-Jin Japanese Invasion. According to the construction method, the wall of castle made use of the Netak(内托) method except the gate, the support stronghold and the watch. The early mountain castle in Korea have this construction method in common.